

해남군 공무원 인구감소 대응 아이디어 발굴

8개 분야 팀장 10명으로 행정협의회 아이디어뱅크 구성 첫 회의 생활인구 확대·정주인구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활력사업 발굴

해남군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에 나섰다.

해남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협의회 아이디어뱅크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는 김자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관공·청년·보육·출산·귀농귀촌 등 8개 분야 담당팀장 등 총 10명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인구 삶의 질 향상, 외부 인구 유입 등 다양한 인구활력사업을 발굴하게 된다.

지난 17일 첫번째 열린 회의에서는 최근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등 선제적 대응으로 보육과 교육 등 분야에서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홀로사는 청년, 어르신 등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의 관심을 증대하고, 군과 각종 사회단체 협조를 통한 안부살피기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특히 각 부서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대 정책을 생애주기별로 정리한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해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 아이디어뱅크는 매월 2~3회 정기 운영을 통해 부서간 협업사업을 발굴하고, 전문가 초청강의 등을 통해 인구문제 인식을 제고하는 협의체로서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김자진 해남군 부군수는 "아이디어뱅크 운영을 통해 각 부서간 소통과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주거지원, 생활인구 유입 등 다양한 정책실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김자진(가운데) 해남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한 인구감소 대응 행정협의회 아이디어뱅크가 첫 회의 후 각을 다지면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4개읍면 220명 9기 발대식

신안군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9기 발대식'을 갖고 지역사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다졌다고 밝혔다.

신안군청 공영장에서 열린 다짐 대회는 2년여간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9기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발대식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 4명에 대한 군수 표창 시상과 함께 14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에 대한 위촉장이 수여됐다.

위원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군민의 복합적 취향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읍면별 복지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또 발대식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의 자세와 기본소양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이 이뤄졌다.

이중대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우리 1004섬 신안에 소외되는 이웃이 단 한 가구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포함한 14개 읍면 협의체 위원 220명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국민 영양 간식' 해남 밭고구마 드세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영양 간식, 전남 해남고구마 수확이 해남 현지에서 한창이다. 올해는 긴 장마로 수확이 다소 늦어졌지만, 이달 초부터 밭고구마인 진흙미 품종이 주로 출하되고 있다. 해남은 연간 3만6000t의 고구마를 생산하는 전국 최대 고구마 주산지, 재배면적은 550여 농가 2200여ha이다. <해남군 제공>

목포시 9월 한 달간 섬주민 택배비 지원

주민 1명당 3만5000원 이내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남 지역 섬 주민들의 택배비 추가 운송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목포시는 도심보다 비싼 섬 지역에서 9월 한 달간 국비 1800만원을 들여 택배 추가 운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섬 지역 주민이 9월 한 달간 이용한 택배 서비스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예산 상황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이용한 택배 추가 운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의 달리도, 울도, 외달도, 장좌도, 우도 5개 섬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주민 약 451명이다.

지원 희망자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유달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목포시청 해양항만과에 우편을 통해 택배 추가 운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섬 주민 1인당 3만5000원 이내이며,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시는 신청 접수 후 신청 택배사의 택배이용정보를 활용해 11월 중 섬 주민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일 유달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계획 및 사업 시행 지침을 전했다. 추후 더 많은 섬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SNS, 주민참여회의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섬 주민들은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 택배 이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왔다"며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완도 명사십리 장애인 '오감 만족' 생태체험

'장벽 없이 즐기는 완도 명사십리 오감 만족.'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바닷속 오감 만족' 생태체험을 운영했다.

이번 생태체험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6차례 걸쳐 진행했다.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은 국립공원 '수상 휠체어'를 타고 바다 생태를 체험했다.

수상 휠체어는 바위가 넓어 모래사장에서 잘 이동

할 수 있고, 바퀴 부력을 이용해 물놀이할 수 있다.

생태체험 참가자들은 백합과의 상록 여러해살이풀인 개운죽을 활용해 '나만의 화분'을 만들기도 했다.

김철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은 "거동이 불편해 그동안 바다를 마음껏 즐기지 못한 지역민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 보람 있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체험을 개발해 지역 장애인들에게 국립공원 탐방기회를 더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수협·목포과학대

우수 수산인재 양성 업무협약



목포수협과 목포과학대학이 우수 수산인재 양성에 손을 잡았다. 목포수협에 따르면 김정룡 목포수협 조합장과 이호근 목포과학대 총장이 18일 과학대 총장실에서 양측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했다. <사진>

양측은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지역 우선 정착을 위한 지원 및 협력 ▲학생들의 교육과 실습을 위한 공간 지원 ▲'해양수산식품융합과' 재학생 장학금 지원을 위한 협력 ▲국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등을 약속했다.

목포수협은 수산업 발전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해양수산식품융합과'를 지원한다.

2023년도 목포과학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선정을 통한 지역 연계 학과로 K-시푸드 산제품 개발, 기능성 가정간편식(HMR) 개발, HACCP 생산관리 및 품질 안전관리, 실무능력 기반 온라인 마켓 MD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